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The Origin of Japanese Wooden Documents Culture via the Korean Wooden Documents in the Sixth and Seventh Century

저자 이경섭
(Authors) Lee, Kyoung-sup

출처 [신라사학보 \(37\)](#), 2016.8, 33-65(33 pages)
(Source) [SILLASAHAKPO \(37\)](#), 2016.8, 33-65(33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3197>

APA Style 이경섭 (2016).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신라사학보(37), 33-65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25 13: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이경섭**

- | | |
|----------------------|-------------------|
| I. 머리말 | IV. 일본 목간과 백제·신라의 |
| II. 일본 초기 목간의 기원과 양상 | 목간 |
| III. 한국과 일본의 ‘木簡’ 문화 | V. 맺음말 |

【국문초록】

지금까지 한국의 고대 목간은 대략 700여 점 이상이 출토되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목서가 있는 것은 450여 점 정도이며, 신라의 목간이 7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 가장 먼저 국가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는 고구려의 목간은 아직 출토되지 않았다. 한국 출토 목간은 중국 간독과 일본 목간의 출토 점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지만,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목간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사문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85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주요논저 : <신라 상대의 粟主와 內省> 《한국고대사연구》22, 2001 ;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
인식과 특징> 《先史와 古代》45, 2015.

의 측면에서 고대 중국의 간독문화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목간과는 시기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목간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동아시아지역에서 목간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변용·수용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은 부족하였다. 고대 중국의 간독문화는 고조선의 멸망 이후 설치된 한사군을 매개로 직접 유입되었다. 그러나 고대 한반도 서북부지역은 식생 환경의 영향과 고대국가가 미성숙한 사회구조의 한계 등으로 죽간의 문화가 현지에서 전개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 한국의 서사문화는 죽간이 배제된 목간의 문화가 채택되어 한국적인 변용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의 성장과 함께 목간문화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상황에 맞게 전개되었다. 문자문화의 경우 중국의 왕조나 군현세력과의 교류와 대립의 과정 속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먼저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한국의 목간문화는 이미 4세기 무렵에는 국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려지고 있는 목간은 6세기부터 8세기의 목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고대 일본의 목간은 지금까지 40여 만 점 정도가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목간의 연대는 640년대 무렵의 목간들이다. 이후 소수의 목간들이 발견되다가 天武천황(672~686)대인 飛鳥淨御原宮 시대를 경과하면서 목간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701년 大寶令의 제정과 시행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목간이 출토하고 있다. 먼저 고대 일본에서 죽간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고대 한국의 목간문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초기 일본 목간의 특징은 비록 한정된 출토유적에서 적은 수의 목간들이 출토하지만, 그 목간의 종류는 문서목간과 꼬리표 목간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확인된다. 반면에 기재내용이나 서식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일본의 목간문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유입되어 한정된 사회 국면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고대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유입되었다고 해석해도 좋다. 특히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와 관련된 전승을 통하여 볼 때 백제계 도래인집단의 역할이 크게 주목되는데, 현재 알려지고 있는 목간의 형태나 기재내용 등에서 7세기 이후 백제목간의 영향이 7세기 전반 이후의 일본 목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 목간, 한국 목간문화, 일본 목간문화, 중국 간독문화, 백제, 신라

I. 머리말

木簡은 종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이전에 문자를 쓰기 위한 書寫材料로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이가 사용된 이후에도 그 재료적 특성에 기인하는 용도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목간문화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의 목간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가 고고학 발굴조사를 거쳐서 출토된 유물이라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그리 높지 않았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목간 자료의 증가로 목간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그에 따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목간 연구는 개별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간의 판독과 용도 등의 규명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점차 신라와 백제 목간의 출토 유적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木簡學¹⁾의 시각에서 한국의 고대목간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동아시아지역의 중국 簡牘과 일본 목간과의 비교 연구도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고대 한국의 목간은 백제와 신라의 것만이 알려지고 있다. 일찍부터 중국 근현세력과의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며 성장하던 고구려에서 목간의 사용이 가장 빨랐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출토되어 알려진 유물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출토된 한국의 목간은 대부분 《韓

1) 목간연구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간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보돈,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 31~45쪽 참조.

《國木簡字典》(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에 수록되어 보고되었는데, 대략 700여 점의 목간이 알려지고 있다.²⁾ 이 가운데 목서가 확인되는 것이 450여 점 정도이며, 신라의 목간이 7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³⁾ 이 가운데 6세기 전반의 능산리사지 목간과 6~7세기로 추정되는 월성해자 목간, 가야 멸망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는 성산산성 목간 등이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6세기 이전에 충분히 문자문화가 각 국의 사정에 따라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간의 기원 문제나 그 문화 등을 고려할 때는 이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간독이나 일본의 목간 문화와 비교할 때에도 이러한 관점은 중요하다.

사실 동아시아의 목간문화라는 시각에서 한국의 목간을 처음 주목한 것은 일본의 연구자들이었다.⁴⁾ 이미 일본은 출토목간의 수가 40여만 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목간의 출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자료적 환경은 고대사 연구가 목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전개되는 상황을 견인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목간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고대 한국의 목간에 대한 연구가 이른 시기부터 전개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일본 목간은 7세기 중반, 640년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소수의 목간이 발굴되다가 天武천황(672~686)

- 2) 《韓國木簡字典》 이후 출토된 목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새로 출토된 자료들은 한국목간학회 차원에서 발굴기관과 협의하여 《목간과 문자》의 지면에 주로 보고되고 있다.
- 3) 신라의 목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224점(《한국목간사전》 기준)에 이르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과 통일신라 목간의 출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 李成市, <新羅と百濟の木簡> 《木簡が語る古代史》 上, 吉川弘文館, 1996; <韓國出土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1997.

대인 飛鳥淨御原宮 시대를 경과하면서 목간의 사용이 증가하고, 그 추세는 701년 大寶令의 제정과 시행 이후 8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 목간의 상황에서 조금씩이나마 출토되고 있는 한국의 목간은 일본 목간의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받았다.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개별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지역의 목간문화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고대 한국의 목간문화와 일본 목간문화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⁶⁾ 이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목간의 용도나 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역사학뿐만 아니라,⁷⁾ 국어학에서도 목간의 표기·용법의 문제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상의 경향들을 인식하고서 동아시아의 목간문화와 목간학의 시각에서 고대 한국과 일본 목간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특히 7세기 무렵의 가장 오래된 일본의 목간들과 고대 한국의 6~7세기 목간들을 비교해 본다면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문제와 한국 고대국가 사이의 연계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5) 최근의 성과로는 三上喜孝,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會》, 吉川弘文館, 2013;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市大樹, 《飛鳥の木簡》, 中央公論新社, 2012; 市大樹, 《黎明期の日本古代木簡》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4, 2015가 주목된다.
 - 6)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국목간과 일본목간의 비교연구 내용들은 최근 橋本繁, 《韓國木簡論 - 漢字文化の傳播と受容 - 》 《岩波講座 日本歷史》20, 2014에 개략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 7) 이경섭, <고대 한일의 문자문화 교류와 목간> 《신라문화》 34, 2009.
 - 8) 권인한, <목간을 통해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문화> 《목간과 문자》 6, 2010; <韓·日 初期 木簡을 통해서 본 한문 문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일본연구》 13, 2012.

II. 일본 초기 목간의 기원과 양상

일본의 목간이 본격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 平城宮유적 발굴이 진전되면서부터이다. 이후 平城宮·京, 難波宮, 飛鳥, 藤原宮·京, 平安宮·京과 같은 都城유적, 大宰府·多賀城 등 지방 國府·郡家와 같은 官衙遺跡, 도성과 지방의 寺院遺跡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출토되어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들 목간은 중세와 근세 목간도 포함하여 전체 40만 점 이상 보고되었다.⁹⁾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의 고대 목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7세기 전반에 해당하며 그 중심연대는 640년대로 확인된다. 이들 最古의 목간群은 아직까지 100여 점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후 ‘壬申의 亂’이 일어난 672년 무렵까지의 목간이 수 백점 정도 알려졌다. 그리고 飛鳥淨御原宮 시기(672~694)의 목간이 대량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목간은 飛鳥池유적, 石神유적, 飛鳥京跡 등에서 1만 점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어서 藤原京 시기(694~710)의 목간이 3만 점 이상 출토되었다. 특히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701년 大寶令 시행 이후의 목간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방 출토의 목간도 7세기 말경부터 출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710년 平城京 천도 후 784년 長岡京으로 천도하기까지는 도성과 지방 출토 목간이 20만 점 넘게 출토되었고, 이후 목간의 출토량이 줄어들면서 중세 이후에는 점차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¹⁰⁾

9) 일본의 목간 출토유적과 그 성격, 출토 점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는 木簡學會, 《全國木簡出土遺跡·報告書綜覽》, 2004 및 《全國木簡出土遺跡·報告書綜覽》Ⅱ, 2014를 참조할 것.

10) 이상 일본 고대 목간의 전체적인 출토 경향에 대해서는 市大樹, 앞의 책, 2012, 19~46쪽 및 市大樹, 앞의 논문, 2015 참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고대 목간의 기원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것이 7세기 전반기의 목간들이다. 이 시기의 목간이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대 한국의 목간들과도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최근 일본 最古級の 목간들을 정리한 市大樹는 다음과 같이 일본 최고 목간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¹²⁾

먼저 이 시기의 알려진 목간이 10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목간의 수가 매우 적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목간의 출토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었음을 밝혔다. 이 시기 목간의 출토는 당시 왕궁이 있었던 飛鳥·難波지역과 그 주변에 집중된다. 이러한 양상이 조금씩 극복되면서 지방유적에서도 목간이 출토되는 시점이 飛鳥淨御原宮 시기(672~694)인 天武와 持統천황 때부터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이 시기의 목간이 출토점수나 출토유구의 한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목간의 내용별 종류가 다양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목간은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문서목간, 꼬리표[附札·荷札]목간, 기타 용도의 목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시 최고급의 목간들에서는 ‘謹啓’¹³⁾가 묵서된 문서목간이나 ‘女丁·大人丁’¹⁴⁾ 등이 기록된 협의의 문서와

11)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목간문화라는 시각에서 중국 간독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秦漢시대를 정점으로 서사재료로서 간독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에 비하여,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 목간문화의 전성기는 6~8세기였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일본의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2) 이하 일본 最古의 목간에 대해서는 飛鳥資料館, 《木簡黎明-飛鳥に集ういにしへの文字たち-》, 2010과 市大樹, 앞의 논문, 2015, 67~74쪽 참조.

13) ·謹啓

·靦然而 (57)×(25)×2 019형식 (前期難波宮跡 大阪市)

14) □□女丁大人丁靥取□久靥 (355)×21×6 081형식 (石神遺跡 奈良縣明日香村)

인명·수량·품목을 기록한 듯한 기록목간류도 함께 확인된다. 꼬리표 목간도 稅物을 징수하면서 부착된 荷札목간¹⁵⁾은 물론 물품정리용의 附札목간이 함께 보인다. 기타 용도의 목간들에서도 習書, 呪符, 和歌 목간 등 다양한 목간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비록 목간이 수량적인 측면에서 당시 일본 고대사회 전반에 일상화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간을 제작하는 文筆技術者層에 의해 기본적인 용도들로 제작·사용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목간들은 전형적인 書式으로 쓴 목간들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기재양식의 非定型性을 의미하는데, 특히 문서목간에서 두드러진다. 대체로 大寶令(701)의 성립 이후 율령적인 문서목간의 제작과 정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걸쳐서 <누구[某] 앞[前]에 아뢴다[白·申]>라는 형식의 이른바 ‘前白’목간이 정형화되어 최고의 목간과 율령제에 기반한 문서목간 사이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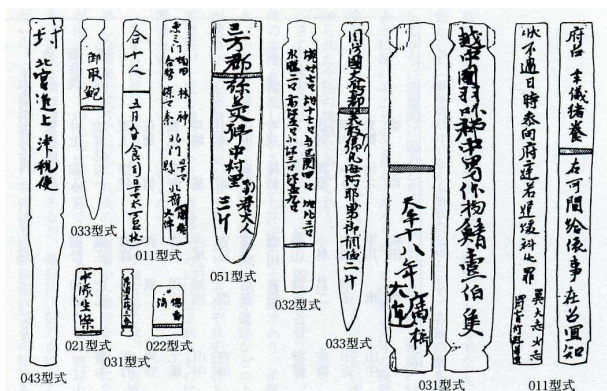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최근의 연구에서 일본 最古의 목간들이 지닌 특징으로 (1)한정된 출토유적, (2)적은 수의 출토목간, (3)목간 종류의 다양성, (4)기재내용의 非定型性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목간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이다. 市大樹가 제시했던 가장 오래된 시

15) 일본 연구자들의 경우 《日本書紀》 大化 원년(645) 7월 丙子條에 기록된 ‘任那調’의 進上和 관련한 詔인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二明覽一 夫自今以後 可四具題三國与二所出調一>로부터 荷札목간이 당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館野和己, <律令制の成立と木簡> 《木簡研究》 20, 1998).

16) 이 전백목간에 대해서는 남북조시대 이전의 중국이나 고대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변용되어 성립한 상신문서의 서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東野治之, <木簡に現われた<某の前に申す>という形式の文書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1983). 이같은 시각에서 고대 한국의 전백목간에 대한 언급 또한 진행된 바 있다(李成市, 앞의 논문, 1997).

기의 목간은 50점이었는데, 이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목간학회에서는 목간의 형태를 18개의 형식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다.¹⁷⁾ 이 가운데 短册型(長方板型)을 기본으로 한 011과 119형식의 목간이 11점, 장방형 목간의 한쪽에 홈을 파거나[032] 홈과 함께 다른 쪽을 뾰족하게 깎은[033] 목간이 13점, 장방형 목간의 한쪽만 뾰족하게 깎은[051] 목간이 2점, 어떤 용도로 만든 목제품에 묵서한 [061·065] 것이 5점, 나머지는 파손 등의 이유로 원형을 알 수 없는 것 [081·8점]과 목간부스러기[091-11점]로 구분된다. 이러한 목간 형태의 분포는 대개 목간이 대규모로 출토되는 7세기 말~8세기 목간의 대체적인 양상들과 비슷하다. 단책형을 기본으로 출발하는 01□형식은 문서목간과 꼬리표목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장방형의 판재에 끈 같은 것을 매달 수 있는 홈의 유무가 기준인 03□형식은 짐꼬리표나 물품꼬리표로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해당 목간들의 내용 또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림 1〉 일본 목간의 형태 분류

17) 일본 목간학회에서 간행하는 《木簡研究》의 凡例 참조.

비록 파손 등으로 원형을 판명할 수 없는 것과 목간부스러기(削屑)가 가장 많은 19점을 차지하였지만 일본 최고급의 목간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은 전성기의 일본목간에 해당하는 7세기 말~8세기의 목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초기 일본 목간문화는 비록 수량적인 측면에서 적은 수가 확인되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목간문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이 같은 양상의 이해는 일본에서의 목간문화의 유입과 서사자료로서 목간의 제작과 사용을 담당하였을 識字層의 존재를 추구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한국과 일본의 ‘木簡’ 문화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목간문화는 고대 중국의 簡牘문화로부터 기원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간독문화가 고대 한국으로 유입된 후 다시 일본으로 목간문화가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한국과 일본에 목간문화가 정착될 때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그 문화의 변용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여기에서 먼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고대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던 목간문화의 기원은 竹簡과 木牘의 간독문화였는데,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확인되는 것은 죽간이 배제된 목간문화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목간이 출토되기 시작하는 7세기가 목간과 함께 종이도 사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설명하기도 한다. 즉 서사자료로서 종이가 이미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적이거나 장부·문서 등에는 종이가 죽간을 대신하였다는¹⁹⁾ 식의 紙木並用

18) 李成市, <古代朝鮮の文字文化と日本> 《國文學》 47-3, 2002.

期라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일본에서도 중국에서처럼 죽간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7세기 이후의 40여 만 점에 이르는 목간이 출토되는 동안 죽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죽간은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대 한국의 ‘목간문화’가 직접 유입되면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중국 간독문화의 유입은 漢武帝 때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서북부지역에 漢四郡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樂浪郡시대의 簡牘자료가 출토되면서 분명해졌다. 특히 근년에 ‘初元4年(B.C.45) 樂浪郡戶口簿木簡’과 ‘論語竹簡’이 보고되면서 낙랑군에서는 簡牘에 기반한 중국 내지에서의 文書行政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같은 시대에 유행하던 사상 또한 공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간독은 1990년대 초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듯하며, 2009년 한국목간학회의 《木簡과 文字》 3·4집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면서 알려진 자료들이다. 이밖에 남정리 116호분[彩篋冢]에서 출토된 목간은 잣나무[柏木]를 이용하여 長方形의 얇은 목판 형태로 제작되었고, 한 면에 3행으로 “縑三匹> 故吏朝鮮丞田肱謹遣吏再拜奉> 祭”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被葬者의 故吏였던 朝鮮縣丞 田肱이 사람을 보내어 葬禮 예물로 縑 3匹을 바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贈方(혹은 書方)목간으로 추정된다. 비록 용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漢代의 名謁목간과 서식이나 규격 등에서 유사하다.²⁰⁾

19) 富谷至,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2005, 134~136쪽

20) 낙랑의 간독에 대해서는 이경섭, <한국 고대 목간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진단학보》 113, 2011 참조.

사실 한사군이 설치되고 한반도 서북부지역에 지배의 문서행정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간독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무렵, 처음 서사문화를 담당하였던 계층은 현지인들이 아니라 遼東郡의 屬吏들로 충당하였다.²¹⁾ 이는 당시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漢代 군현의 문서행정을 담당할 識字層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樂浪郡 동부도위를 폐지하면서 예민의 읍락 거수를 현후로 임명할 때 그 주부와 제조를 모두 예민으로 충당한 사실로 보아 점차 현지인들도 문자를 습득하고 문서행정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어찌되었건 한대 문서행정의 기술은 간독문화를 온전히 체현하고 있던 외부의 식자층 유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는 역사상에 등장하면 서부터 중국의 군현인 낙랑군·현도군·대방군 등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한말 이래의 중국계 유민과 낙랑·대방군의 유이민들도 다수 유입되면서 국가적 문서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유리했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簿籍과 書籍(論語), 禮制와 관련된 贈方木簡 등이 확인된 것에서 樂浪郡 등을 통하여 한반도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漢代의 간독문화가 직접 유입되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알려지고 있는 자료로 볼 때 낙랑군시대의 간독과 한국 고대의 목간 사이에는 일견 시간적·문화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진다. 기원 전후의 자료인 낙랑 간독이 등장하고 수 세기가 지난 6세기에 이르러서야 백제와 신라목간이 확인되고 있으며, 목간의 형태나

21) “玄菟樂浪 武帝時置 … 郡初取吏於遼東”(《漢書》 地理志 下)

22)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三國志》 東夷傳 沃沮)

서사양상 등을 놓고 볼 때에도 낙랑 간독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황제를 정점으로 郡縣을 통한 編戶齊民의 이념을 현실화시켰던 중국의 간독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고대 한국의 정치·문화적 상황 때문이다. 한국 고대국가의 등장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시간차는 존재하지만 4세기에 이르러 국가적인 면모를 정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대국가의 문자사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서사재료의 중심에 목간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373년(小獸林王 3) 율령의 반포나 414년 건립된 廣開土王陵碑를 통해서도 이른 시기부터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²³⁾ 백제 또한 近肖古王代(346~375)에 이르러 국가적인 書記의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한편 신라는 지리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중국 왕조나 근현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쉽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의 성장 뿐만 아니라 문자기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이었다. 그러나 6세기 초 비문을 검토해 볼 때 고구려가 변용시킨 한자문화를 기층으로 한 문자기술을 구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양상은 마립간기 고구려와 신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문헌상으로도 5세기 후반 무렵에는 人民의 枹악, 築城

23) 이에 대해서는 여호규,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011 참조.

24) 三十年 …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30년)

25)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2000;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

과 같은 力役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조금 뒤쳐지는 듯하지만 5세기 마립간기 무렵에는 정치기술로서의 문자 사용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성장에 동반한 고대 문자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木簡’의 문화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고대 죽간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사재료로서 나무만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간독문화와의 확실한 차이이자 한국적 변용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간독문화가 유입되던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환경과 植生の 요인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은 竹簡을 제작할 수 있는 왕대[王竹]와 같은 대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자 植生지대였다.²⁶⁾ 차출되어 새롭게 설치된 邊郡인 한사군에 파견되었던 한의 屬吏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 적합한 문서행정과 문자생활을 시도하였다고 추정된다. 樂浪郡과 帶方郡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平壤論語竹簡과 같은 書籍類는 중국 내지에서 수입하였다고 여겨지며,²⁷⁾ 簿籍類는 목간을 編綴하거나 다면 형태의 觚로써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후 목간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서사재료의

26) 대나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출현하는 종수도 감소하고 키도 작아지며 분포지역도 드물어지는데 이는 북부지방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고온 다습한 조건을 선호하는 대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제작과정을 거쳐 규격화되는 죽간으로 사용할만한 큰 키의 대나무인 참대속의 북한계선은 충남 서산~계룡산~전주~소백산~설악산에 이르는 지역이며, 왕대는 더 남쪽인 담양·익산·나주·보성·산청·하동·진주 등지에서 서식한다(공우석,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6-4, 2001).

27) 尹在碩,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東洋史學研究》 114, 2011.

중심을 차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출토되어 알려진 한국의 고대 목간에서는 편철죽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편철간의 역사적 경험을 추론하는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4세기 중반²⁸⁾에 축조된 안악 3호분의 고분벽화이다. 안악 3호분의 고분벽화 가운데 政事圖에는 묘주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에 두 사람의 관인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의 관인은 記室, 오른쪽의 관인은 省事라는 職名이 기재되어 있다. 기실은 오른손에 붓을 들고 묘주의 지시나 명령을 적고 있는데, 이 때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목간으로 추정된다. 한편 省事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문서 같은 것을 든 채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사의 무릎 앞에는 또 다른 문서도 펼쳐져 있다(<그림 2>).



<그림 2> 안악 3호분의 記室과 省事

28)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는 永和 13년(357년)이라는 年號가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 東晉 穆帝의 연호이며, 고구려 고국원왕 27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사가 손에 들고 있는 문서는 그 형태가 옆으로 긴 장방형이며, 그 안에 검은 색으로 10개 이상의 세로선이 그어져 있고 가로로는 2줄의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 이러한 형상은 성사의 무릎 앞에 놓인 다른 문서도 같다. 애초에 이 그림을 나무판일 가능성이 높으며 종이문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며,²⁹⁾ 이후에는 성사가 들고 있는 것을 목간 여러 개를 두 줄의 붉은 끈으로 묶어 연결한 ‘편철간’으로 추정하고서 4세기 한국 고대사회에서 이미 편철간이 유통되었다고 간주하였다.³⁰⁾

여기서 먼저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묘주인 冬壽를 정점으로 記室과 省事, 그리고 편철간이 고구려의 현실을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미 冬壽의 출자는 중국계 망명객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³¹⁾ 안악 3호분의 정사도는 중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記室은 文書, 文章,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로서 漢나라 때부터 설치되었고, 省事는 문서를 낭독하는 하급관리로서 西晉시기에 문헌상으로 처음 확인되고 있다.³²⁾ 이로 보아 記室과 省事는 다분히 중국적 職名을 의미하며, 이들이 등장하는 정사도의 편철간을 고구려의 상황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들 자료들은 한사

29) 송기호,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5, 2002.

30) 윤선태,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53~63쪽. 이미 고광의도 省事가 들고 있는 것을 7~8개의 간독을 2~3줄의 끈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고, 이 문서를 목간으로 된 冊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사 관련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246~247쪽).

31) 이에 대해서는 공석구,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歷史學報》 121, 1989; 전호태, <역사의 블랙홀, 동수 묘지>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참조.

32) 송기호, 앞의 글, 2002, 19~20쪽.

군 나아가 요동군 지역까지 점차 영유해간 고구려의 경우 중국계 유민들을 수용하면서 한자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혹 이 그림이 고구려의 상황을 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벽화의 편철간은 죽간이 아닌 목간이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반도 서북부지역은 죽간을 제작할만한 대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지대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대나무의 입수가 어려운 변경의 건조지대 등에서는 목간을 이용해 편철간을 제작하였던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는 것에서 고대 한반도에서도 대나무가 아닌 나무로 만든 편철목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듯 고대 한국에서 죽간이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다면 고대 한국 목간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일본에서도 ‘목간의 문화’만이 유입되어 전개되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의 간독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고서 목간의 문화로 일차적인 변용을 거친 후 일본 목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IV. 일본 목간과 백제·신라의 목간

가장 오래된 일본 고대목간의 특징 가운데 왕궁과 같은 한정된 유적에서 적은 수의 목간이 출토되에도 불구하고 목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은 일본 목간의 기원 문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먼저 초기에 목간이 고대 일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목간이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목간을 사용하여 문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식자층이 그리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간의 종류는 문서목간을 비롯해 꼬리표목간, 기타 용도의 목간 등 매우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전성기 일본 목간의 용도나 사용과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나 이질감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왕권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문자 사용능력이 있는 식자층이 결집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목간의 문자기술을 지닌 집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들 문자 기술을 지닌 집단이 이른바 書人·文人의 의미하는 후미히토(フミヒト)였으며, 倭 왕권에서 文筆·記錄을 담당하였던 전문직에 종사하였다.³³⁾ 처음에는 후미히토가 개인으로서 문필·기록의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점차 관료화되면서 6세기 중후반 이후 씨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분장조직으로 편성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한국을 경유하여 건너온 도래인집단³⁴⁾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백제에서 이주했던 王仁과 阿直岐 전승이다. 백제의 사자로 渡倭했던 阿直岐는 경전에 밝아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그의 추천으로 王仁을 초빙하여 또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는데 각각 阿直岐史와 書首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³⁵⁾ 아직기와 왕인 전승은 연대의 불명확함이나 《논어》·《천자문》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³⁶⁾ 일본에서 문자

33) 加藤謙吉, 《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2002.

34) 關晃, 《歸化人》, 至文堂, 1956; 田中史生, 《倭國と渡來人 - 交錯する<内>と<外>-》, 吉川弘文館, 2005.

35) 《日本書紀》卷10, 應神天皇 15년 및 《日本書紀》 권10 應神天皇 16년. 아직기와 왕인 전승은 阿知吉使와 和邇吉使로 표기되어 《古事記》에도 전하는데 이때 왕인은 《論語》와 《千字文》을 전하였으며 阿直史와 文首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36) 이근우,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2004.

문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백제와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王辰爾와 그 一族의 전승이 주목된다.³⁷⁾ 왕진이와 관련한 내용은 《일본서기》의 欽明·敏達紀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저명한 것이 ‘烏羽의 表’ 사건이다.³⁸⁾ 敏達紀 원년(572) 고구려의 국서를 후미히토인 東西諸史들은 해석하지 못하였으나, 왕진이만이 해석하였고 烏羽의 表 또한 기이한 방법으로 풀이하였다.³⁹⁾ 왕진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欽明天皇 14년(553)으로,⁴⁰⁾ 難波津의 관세 혹은 항만세로 추정되는 船賦를 관장하게 하고 船史의 姓을 내려주었다고 전한다. 이후 《일본서기》 흙명기 30년(569)조에 왕진이의 甥姪이라는 膽津이 白猪屯倉 田部の 丁籍을 정리한 공으로 白猪史의 姓을 하사받고 둔창의 관리자인 田令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⁴¹⁾ 백제

37) 왕진이 본인의 경우 분명한 출처는 알려지지 않으나, 그 후예씨족들 관련 기록을 볼 때 백제계로 추정된다.

38) 大橋信弥, <王辰爾の渡來-フヒトの系譜-> 《文字と古代日本》 2, 2005.

39) 五月 丙辰 天皇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 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 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 勤乎辰爾 懿哉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近侍殿中 既而詔東西諸史曰 汝等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又高麗上表疏 書于烏羽 字隨羽黑 既無識者 辰爾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廷悉之異(《일본서기》 권20, 敏達天皇 원년).

40) 秋七月辛酉朔甲子 幸樞宮 蘇我大臣稻目宿禰 奉勅遣王辰爾 數錄船賦 卽以王辰爾爲船長 因賜姓爲船史 今般連之先也 (《일본서기》 권19 欽明天皇 14년).

41) 七月壬午 秋七月己卯朔壬午 遣蘇我大臣稻目宿禰 穗積磐弓臣等 使于吉備五郡 置白猪屯倉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6년); 春正月辛卯朔 詔曰 量置田部其來尙矣 年甫十餘脫籍免課者衆 宜遣膽津膽津者 王辰爾之甥也 檢定白猪田部丁籍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30년); 夏四月 膽津檢閱白猪田部丁者 依詔定籍 果成田戶 天皇嘉膽津定籍之功 賜姓爲白猪史 尋拜田令 爲瑞子之副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30년); 冬十

둔창의 담진의 사례에서 도래계 후미히토들은 호적의 작성 및 정리와 같은 문서행정의 능력을 소유한 집단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도래인들의 이같은 능력은 자신들이 거주했던 고대 한국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필연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오래된 일본 목간은 640년대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던 가장 오래된 목간의 양상이나 《일본서기》 등의 문헌기록을 통하여 볼 때 일본에서도 6세기 무렵에는 목간의 문화가 유입되었음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 문화는 고대 한국에서의 역사적 경험 아래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 목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서 백제와 신라의 목간문화와 비교해 보면 보다 더 확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고대 목간은 수십 년에 걸친 발굴과 정리, 연구를 거치면서 목간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형식번호를 부여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목간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며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분류로써, 일차적으로 목간을 고고자료로 취급한다는 연구의 관점을 의미한다. 일본 목간의 형태분류에서 기본적인 형태들은 01□형식과 03□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중요한 차이는 일본에서 단책형이라고 불리는 장방관형 목간을 기본으로 하고서, 끈 같은 것을 매달 수 있는 홈의 존재 여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간의 형태는 목간의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목간의 용도는 크게 ㉠문서목간, ㉡부찰목간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문서목간의 경우 대부분 011형식의 목간에 해당하며, 부찰목간은 홈이 새겨진 031·032·033형식이 대표적인 것에서 목간의 형태가 내용에 대응하여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月戊子朔丙申 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 (《日本書紀》 권20, 敏達天皇 3年).

아직까지 한국 목간연구에서는 일본학계처럼 형식과 용도에 대한 합의된 분류체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에 따른 분류는 일본 목간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목간의 형태는 대체로 아래의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⁴²⁾

〈표 1〉 한국 목간의 형태와 용도 분류

- ◎ 목간의 형태 분류
 - ├─ 장방판형(長方板形)목간
 - ├─ 다면형(多面形)목간
 - ├─ 원주형(圓柱形)목간
 - ├─ 홈형목간
 - └─ 기타 형태 목간
- ◎ 목간의 용도 분류
 - * 문서목간
 - ├─ 문서(文書)
 - └─ 기록(記錄)
 - ├─ 장부(帳簿)
 - ├─ 집계(集計)
 - ├─ 전표(傳票) [支給 / 請求 등]
 - └─ 기타
 - * 꼬리표(附札)목간
 - ├─ 짐꼬리표(荷札)
 - └─ 물품꼬리표(物品附札)
 - * 기타 목간
 - ├─ 주술(呪術)·의례(儀禮)목간
 - ├─ 글자연습(習書)목간
 - ├─ 문서표지(文書標識)목간(題籤軸)
 - ├─ 전적류(典籍類)목간(논어 등)
 - └─ 기타(書簡 등)

한국과 일본 목간의 분류체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형태적인 측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의 경우는 대체로 한국이나 일본의 목간이 문서, 꼬리표(附札), 기타의 세 가지로 구분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형태의 경우 한국의 장방판형 목간은 일본의 011형식(단책형)

42)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19~31쪽.

목간에 해당하며, 흠형 목간은 03□형식에 대응한다. 기타 목간의 분류는 주로 주술 등의 특수한 용도에 걸맞는 형태로 제작된 것들이다. 여기서 두 나라 목간의 차이는 한국 목간에서 확인되는 다면형(多面形)목간과 원주형(圓柱形)목간이 일본 목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고대 한국목간의 형태상 특징으로 나뉘는 것들의 꺾임만 벗긴 채 사용한 ‘원주형목간’이나, 목간의 면이 양면이 아닌 3~4면 이상으로 제작된 ‘다면목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한 견해는 중요하다.⁴³⁾ 다면목간의 형태는 중국 고대에서 觚라고 불리던 목간으로부터 기원하는데,⁴⁴⁾觚는 하나의 목간에 많은 글자를 기록할 수 있고, 적은 수의 목간으로 많은 내용을 기록·전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목간의 양을 줄이거나 절약할 수 있다. 윤선태는 주로 신라의 월성해자 목간과 안압지 목간을 비교하여 다면목간문화의 추이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면목간(원주형포함)은 6~7세기에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고 8세기 이후에는 현저히 축소·소멸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면목간은 ‘편철간’을 경험한 전통 속에서 그 특성을 살릴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6~7세기의 낮은 종이 보급도와 관련하여 다면목간이나 원주형목간이 아쉬운 대로 편철간이나 종이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고대 일본의 목간에서 다면·원주형 목간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고대사회가 중국 현대의 편철간시대부터 종이시대를 모두 경험한 것에 비해, 일본으로는 한반도에서 지목이 병용되던 7세

43) 윤선태, 앞의 논문, 2007; 앞의 책, 2007. 이러한 특성을 ‘다면목간문화’라는 표현으로 정의하였는데, 필자는 대체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44) 중국 고대 목간 중에서 다면목간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觚 외에檄이라고 불린 목간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승률, <서사자료의 관점에서 본 간백 I > 《오늘의 동양사상》 17, 2007, 270~274쪽 참조.

기 이후의 목간 사용법이 전파되어 갔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한대의 ‘편철간문화’, 한국 고대의 ‘다면목간문화’, 고대 일본의 ‘단책형(短冊形)목간문화’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국 목간의 특성으로 다면목간과 원주형목간을 주목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목간문화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목간 속의 한국 목간문화를 언급하려면 가장 먼저 ‘왜 죽간은 사용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와 ‘왜 편철간은 사용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함께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죽간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편철간의 경험이 다면·원주형 목간문화로 귀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고대 목간문화의 특징은 單獨簡의 문화였다고 생각되며,⁴⁵⁾ 다면목간은 편철간의 역사적 경험이 변용된 것이 아니라 단독간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자연스런 전개이자 귀결이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백제목간의 경우 다면목간은 주로 능산리 목간들에게서 확인되며, 그밖에는 궁남지 목간 1점, 현내들 목간 1점 등이 보고되었다. 궁남지와 현내들 목간은 7세기 초 혹은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둘 다 습서목간으로 사용되었다. 6세기 중반의 것으로 생각되는 능산리의 다면목간들은 대다수가 문서목간이라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백제의 다면목간을 통해서 볼 때 그 용도가 문서목간에서 습서의 용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6세기 중후반 → 7세기 전반)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세기 문서목간

45) 김경호, <韓國 古代木簡 보이는 몇 가지 형태적 특징> 《史林》33, 2009; 이경섭,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목간을 통해서 본 한국 목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27, 2013.

들의 형태⁴⁶⁾는 점차 장방관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되며, 서사면은 많은 수의 글자와 몇 행, 몇 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서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다면목간이 광범위하게 점유하던 문서목간을 7세기 이후에는 장방관형 목간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문서행정의 진전이라는 필연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종이문서의 書式 등이 문서목간에 반영되는 경향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더불어 종이의 보급이 진전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래도 다면목간은 한 면에 1행 이상을 쓰기는 불편하였기 때문에 종기와 같은 평면형의 서사재료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다면목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장방관형 목간이 더욱 精製化된 整形性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면목간은 7세기 이후 문서목간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점차 習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낮은 서사재료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⁷⁾

백제목간의 이러한 흐름은 7세기 중반 이후 일본 목간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면목간의 형태는 고대 한국에서 7세기 이전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될 만하지만 백제목간의 경우 7세기 들어 장방관형 목간으로의 형태적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의 목간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백

46) 현재까지 알려진 7세기 백제 문서목간의 경우 부여의 궁남지, 쌍북리, 관북리 출토 목간들과 나주의 복암리 목간 등이 있으며, 주로 장부나 집계 등의 기록류의 것들이 많다.

47) 이경섭, <‘百濟木簡’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백제논총》 9, 2010, 293~296쪽. 이러한 백제목간에 비해 신라의 경우 월성해자 목간(6~7세기)뿐만 아니라 이성산성 목간(7세기 전반) 무렵에도 다면목간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 목간문화의 精製性, 나아가 백제 문자문화의 선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제 멸망 전후 고대 일본으로 이주해간 백제인과 그 遺民들의 文筆활동 속에서 백제의 목간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식되는 기반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阿直岐와 王仁 전승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백제와倭는 정치와 지배의 기술인 문자문화의 교류에서도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었기에 7세기 당시 백제 멸망 이후 그 遺民의 문자기술을 수용하는 데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문서목간으로서의 다면목간이 고대 일본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고대 한국 특히 백제의 7세기 이후 목간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목간의 출토 현황을 볼 때 640년대 이후 수 백점 정도의 목간이 출토된 것에 비해 672년부터 694년까지 飛鳥淨御原宮 시기에 출토된 목간이 1만점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제도의 정비과정에 따른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百濟遺民의 대규모적인 渡倭에 따른 식자층의 획기적인 증대에 기인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꼬리표 목간의 제작관행에 대한 문제이다. 목간의 용도는 크게 문서목간, 꼬리표목간, 기타 용도의 목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꼬리표목간은 주로 이동하는 짐에 부착되는 짐꼬리표와 창고에서의 보관이나 물품 정리 등을 위해 부착하는 물품꼬리표로 나누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꼬리표목간의 형태에서 백제와 신라목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함안 城山山城에서는 6세기 중반 신라지방사회에서 제작된 짐꼬리표(荷札)목간이 대규모로 발굴·보고되었다. 그런데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대부분은 흠이 파악된 반대방향인 아래쪽에서부터 문자를 기입하고 있다. 통일 이전 신라의 王京에서 사용되다가 폐기되었던 月城垓子목간의 꼬리표목간들도 성

48) 이경섭, <고대 한일의 문자문화 교류와 목간> 《新羅文化》 34, 2009, 272~274쪽 참조.

산산성 꼬리표목간과 마찬가지로 홈을 새긴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서부터 문자를 쓴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백제의 꼬리표목간은 그 개체 수는 적으나 모두 홈이 있는 상단에서부터 문자를 기입하고 있다. 이는 꼬리표목간의 제작관행에 양국 사이의 차이가 있었으며, 목간문화라는 시각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차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꼬리표목간의 홈을 새긴 부분을 위로 삼아 문자를 기입 하던 서사습관은 백제와 고대 일본이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⁴⁹⁾ 이같은 사실 또한 백제의 목간문화가 고대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⁵⁰⁾ 주었던 것으로 생각해 두고 싶다.

V. 맺음말

현재 고대 한국의 목간은 700여 점이 조금 넘게 알려지고 있다. 고구려목간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채 신라와 백제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 성산산성 신라목간의 대규모 발굴을 계기로 신라와 백제목간이 조금씩이나마 출토되고 있다. 고대 한국의 목간이 점차 알려지면서 이미 40여 만 점 가량의 목간이 출토되어 고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는 일본 고대사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고대목간은 7~8세기의 자료들이

49) 일본 꼬리표목간의 경우 문자를 써내려가는 윗부분에 홈을 새긴 032·033 형식과 위와 아래 모두 홈을 새긴 031형식이 대표적이다(앞의 <그림 1> 참조). 이러한 형태는 고대 한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홈을 한번 새기는 것이 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백제 관북리목간에서도 아래 위에 홈을 새긴 꼬리표목간이 확인된다.

50)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2009.

출토되었기 때문에 6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한국 목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선행하는 6세기의 한국 목간과 이어지는 시대인 7~8세기의 목간을 비교 검토한다면, 두 나라 목간문화 사이의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지역 문자문화의 전개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목간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를 주도했던 일본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일본 목간의 현상을 기준으로 한국의 목간을 비교하는 시각이 연구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동아시아 목간문화와 목간학의 시각에서 초기 일본 목간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원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초기 일본 목간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목간문화의 배경과 특징을 언급하였다.

가장 오래된 일본의 목간들은 한정된 출토유적, 적은 수의 출토목간, 목간 종류의 다양성, 기재내용의 非定型性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 목간의 형태들은 전성기였던 7세기 후반~8세기 일본 목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목간의 문자 기술을 독점하였던 권력집단과 文字技術者집단이 한정된 역사적 국면에서 결합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목간문화의 양상이 기원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완성기의 그것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고조선 멸망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고 한반도 서북부지역에 漢代의 간독문화가 유입되었던 정황과 유사하다.

고대 일본의 목간문화를 포함한 문자문화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중국 군현의 유이민 계통의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고대 한국의 문자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고대 일본이 죽간을 배제한 목간의 문화를 수용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대 한국에 한사군을 매개로 중국의 간독문화가 직접적으로 유입되었지만, 대나무를 구하기 힘든 서북부지역의 환경적 영향으로 고대 한국에는 목간의 문화가 정착하였다. 이는 중국 간독문화의 한국적 변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죽간의 재료인 대나무의 식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죽간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였지만, 변용된 한국 목간문화의 영향으로 목간문화만이 고대 사회에 유입되어 확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고대 일본의 초기 목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자문화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서기》와 같은 문헌자료의 전승을 통하여 주로 백제계 인물들이倭 왕권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목간의 전반적인 형태적 특징들도 백제 목간문화의 변화 양상에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고대 목간의 경우 다면목간과 원주형 목간의 존재가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백제의 경우 7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면목간과 원주형 목간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7세기 이후 원주형 목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면목간의 경우는 습서의 용도 정도만이 일부 확인될 뿐이다. 6세기 단계에 복잡한 기록류나 문서목간의 역할을 담당하던 다면목간이 長方板型[일본의 短冊型] 목간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목간문화의 역사적 진전과 종이의 문서행정이 점점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투박한 다면 혹은 원주형의 목간이 아닌, 종이문서의 직전 형태로서 세련된 장방판형목간이 6세기를 경과하면서 백제에서는 사용되었던 것 같다. 이에 반하여 신라는 월성해자와 이성산

성목간을 통하여 볼 때 7세기 무렵에도 다면목간과 원주형목간이 문서행정의 일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꼬리표목간의 흠을 통하여 볼 때 백제는 글자를 써내려가는 위쪽에 흠을 새겼음에 비하여, 신라는 내용이 끝나는 아래쪽에 흠을 새기고 있다. 두 나라의 꼬리표목간 제작의 관행이 서로 다른 점 또한 목간문화에서 하나의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제와 신라 목간문화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 일본의 목간을 살펴본다면 일본 고대 목간은 백제목간과의 친연성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문헌상의 전승이나 실물 목간의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보아 백제의 목간문화는 일본의 목간문화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개별 목간들의 내용에 대한 비교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목간 자체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고대 일본목간의 기원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새로운 목간의 발굴이 이어진다면 고대 한국과 일본 목간의 비교 연구는 보다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富谷至,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2005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 加藤謙吉, 《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2002
關晃, 《歸化人》, 至文堂, 1956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4
木簡學會, 《木簡研究》
木簡學會, 《全國木簡出土遺跡·報告書綜覽》, 2004
木簡學會, 《全國木簡出土遺跡·報告書綜覽》 II, 2014
飛鳥資料館, 《木簡黎明-飛鳥に集ういにしへの文字たち-》, 2010
三上喜孝,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會》, 吉川弘文館, 2013
市大樹, 《飛鳥の木簡》, 中央公論新社, 2012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2000
田中史生, 《倭國と渡來人-交錯する<内>と<外>-》, 吉川弘文館, 2005
- 고광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사 관련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공석구,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歷史學報》 121, 1989
공우석,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6-4,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木簡字典》, 2011
권인한, <목간을 통해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문화> 《목간과 문자》 6,
2010
권인한, <韓·日 初期 木簡을 통해서 본 한문 문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 《일
본연구》 13, 2012
김경호, <韓國 古代木簡 보이는 몇 가지 형태적 특징> 《史林》33, 2009
송기호,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5, 2002

- 여호규,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윤선태,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2007
- 尹在碩, <韓國·中國·日本 出土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東洋史學研究》 114, 2011
- 이경섭, <고대 한일의 문자문화 교류와 목간> 《신라문화》 34, 2009
- 이경섭, <‘百濟木簡’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백제논총》 9, 2010
- 이경섭, <한국 고대 목간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진단학보》113, 2011
- 이경섭,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목간을 통해서 본 한국 목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27, 2013
- 이근우,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2004
- 이성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
- 이승률, <서사재료의 관점에서 본 간백 I> 《오늘의 동양사상》 17, 2007
-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2009
- 전호태, <역사의 블랙홀, 동수 묘지>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 한국목간학회, 《목간과 문자》
- 館野和己, <律令制の成立と木簡> 《木簡研究》20, 1998
- 橋本繁, <韓國木簡論-漢字文化の傳播と受容->, 《岩波講座 日本歴史》20, 2014
- 大橋信弥, <王辰爾の渡來-フヒトの系譜-> 《文字と古代日本》 2, 2005
- 東野治之, <木簡に現われた<某の前に申す>という形式の文書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1983
- 市大樹, <黎明期の日本古代木簡>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4, 2015
- 李成市, <古代朝鮮の文字文化と日本> 《國文學》 47-3, 2002
- 李成市, <新羅と百濟の木簡> 《木簡が語る古代史》上, 吉川弘文館, 1996
- 李成市, <韓國出土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1997

ABSTRACT

The Origin of Japanese Wooden Documents Culture via the Korean Wooden Documents in the Sixth and Seventh Century

Lee, Kyoung-sup

The narrative culture of ancient East Asia originated in the bamboo and wooden documents culture of China, which started to be introduced in the northwestern parts of Korean Peninsula via the Four Commanderies by Han after the collapse of Gojoseon and underwent transformation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regions and nation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ncient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cient Korea, character culture first developed in Goguryeo and Baekje that had confrontations against and exchanges with the Chinese dynasties in high frequency. The character culture based on wooden documents developed in each nation since the fourth century with wooden documents used broadly in Unified Shilla. Most of Korean wooden documents that are currently known were made in the sixth to eighth century, and they are compared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most of which were made in the seventh and eighth century, for similarities across various aspects. This study examined the early wooden documents of ancient Japa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oden documents in the sixth and seventh century. The origin of Japanese wooden documents

culture is estimated to have begun with the direct introduction of ancient Korea's wooden documents culture that had reached certain level of completion. As Japan had close exchanges with Baekje, it seems that Baekje's character culture and further wooden documents culture had the biggest influences on Japan's wooden documents culture.

Key words : Wooden Documents, Korea Wooden Documents Culture, Japanese Wooden Documents Culture, bamboo and wooden documents culture, Baekje

논문 투고일 : 2016. 8. 2. 심사 완료일 : 2016. 8. 12. 게재 확정일 : 2016. 8. 12.